

자 료 번 호	100
계 6P 호	

韓半島의 統一基盤造成 으로서의
集中理論의 適用 可能性與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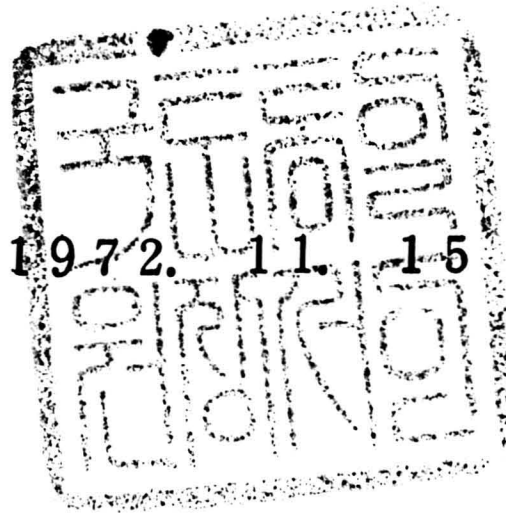
보 관 용
(관 리 과) 5/5

1972. 11

提 出 文

國 土 統 一 院 長 官 貴 下

이 報 告 書 를 『韓 半 島 의 統 一 基 盤 造 成 으 로 서 의
集 中 理 論 의 適 用 可 能 性 與 否』 의 最 終 報 告 書 로
제 출 합 니 다



研究機關名：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金 仁 鴻

目 次

1. 収斂理論의 基盤으로서의 産業社會觀	3
2. 収斂理論의 起源	11
3. 収斂理論의 經濟學的 側面	19
4. 収斂理論의 社會學的 側面	29
5. 収斂理論과 未來學	45
6. 収斂理論에 對한 共產圈의 批判	53
7. 南北 再結合을 爲한 収斂理論 適用可能性의 與否	61

1. 收斂理論의 基盤으로서의 産業社會觀

1. 収斂理論의 基盤으로서의 産業社會觀

社會理論的 思考方式에서 産出된 가장 새롭고 現在로서 가장 影響力 많은 理論이 収斂理論이다. 主張의 骨字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라는 現代의 代表的인 이 두개의 社會制度가, 어느 程度의 長時日의 持續的인 接近過程을 通하여, 結局은 이른바 “單一的이며 現代의인 産業社會”가 出現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未來의 社會形成(構造概念)의 特徵으로서의 産業社會概念과 “産業社會時代”(時代概念)라는 現代의 歷史的 時代概念이 収斂理論의 가장 重要한 成立要因이 된다.

여기서 産業社會觀과 収斂理論은 同一한 것이 아니냐 하는 疑問이 必然的으로 發生하게 될 것이고, 만일 同一한 것이 아니라면, 이 두개의 理論 사이에 介在하는 共通된 部分과 差異點, 그리고 相互作用的인 面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될 것이다.

이 두개의 理論이 어느 程度 하나의 社會理論으로서 定立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論理展開에서 나타나는 두가지 段階에서이다. 여기서 産業社會的인 概念이 그 初期段階이고, 基盤이 되며, 이 基盤 위에서 収斂理論이 展開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収斂理論의 斷行的인 面 뿐만이 아니라 그의 發生條件과 社會的 機能의 把握을 위해서는 産業社會에 대한 理解가 그 前提가 될 수 밖에 없다.

“現代 産業社會”라는 發想은 50年代 中半期에서 일어나기 始作하여 繼續的인 發展을 보게 되었다. 始初에는 대단히 一般的인 模糊한 資本主義社會의 未來像이었다. 現代의 大企業問題, 人口膨脹 大衆傳達方法, 大衆消費等等과 같은 것이 그 對象이었다.

科學 技術革命이 提起한 새로운 問題들을 이런 産業社會的 思考

로서 解明을 해보자는 것이다.

産業社會理論의, 最初의 歷史哲學的이며 社會學的인 接近은 Hans Freyer의 "西洋世界史"와 Arnold Gehlen의 "産業的 社會에서의 社會心理學的인 問題"라는 著書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어 Hans Freyer의 "現代論"과 역시 Arnold Gehlen의 "技術時代의 靈魂"에서도 이러한 接近이 試圖된다. 이러한 책들에서 볼 수 있는 "現代産業社會"의 社會學的인 定義의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人間의 疎外, 官僚制度化 혹은 "道具化" 그리고 産業社會의 "支配的慾求"로서의 "計劃樂觀主義"와 "消費慾求" 등이 그것이다. 또 官僚機構에 對한 人間의 "適應"과 "産業經濟的 體制"의 壓力 밑에서의 人間의 隸屬등이 論議되고 있다. 이러한 事象의 大前提로서 技術에 依하여 支配받는 産業經濟的인 壓力의 存在가 있으며, 人間은 거기에 隸屬되고, 그것은 어떠한 社會秩序의 社會經濟的인 構造와는 完全히 獨立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란서의 社會學者이며 經濟學者인 Jean Fourastie는 그의 著書 "20세기의 偉大한 希望"에서 現代社會에 미친 技術的 進歩와 勞動生産力의 向上에 對하여 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現在 農耕社會에서 産業社會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살고 있으며, 이 過渡期은 세가지 段階로 区分된다. 즉 産業化段階이며 그 마지막 段階에 서고 있는 것이 蘇聯이고, 産業膨脹段階와 消費財超過生産段階가 있는데 美國이 現在 그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論은 이미 獨逸의 國民經濟學的 歷史學派에 依하여 70年前에 試圖된 經濟段階說을 새로이 Fourastie에 依하여 復活시킨 느낌이고 그뒤에 美國의 W.W. Rostow에 依하여 繼

承되어 發展을 보았다. 또 Harry G. Johnson에 있어서는 西方 側의 몇개 國家는 이제 「富裕한 社會」로 變容하였다고 간주한다.

이 새로운 社會에 있어서는 「大衆이 資本家가 되며」, 거기서 解決해야 할 重要한 問題는 「富의 增大에 따라 일어나는 需要의 革新」이라는 것이다.¹⁾

그러나 이것은 Galbraith自身은 最近에 새로운 「産業國家論」을 展開하였는데²⁾, 이에 의하면 新産業國家는, 「工学構造」의 指導 밑에서 200~300의 巨大会社の 움직임에 의하여 支配된다는 것이다. 이 「工学構造」는 資本과 生産物市場을 統制하는 同時에 政府 諸 機關과 緊密한 連結로서 機能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多少 獨立的인 「教育者, 科學者階層」이 그 影響力을 強化하고, 그들은 어느 程度까지는 革新的인 變化를 招來하는 能力을 具備하고 있다.

요컨대 이 「工学構造」가 現實에서 社會를 管理하고, 同時에 「教育者, 科學者階層」이 未來의 社會에서 더욱 더 重要한 役割을 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Miens에 依하여 發表되고, 그뒤 大戰前에 美國의 援助 밑에서 行하여진 經濟力 集中에 관한 새로운 事實의 發見은, 1940年代初 世界의 知識人들에게 커다란 衝擊을 준 「經營者革命論」과 그리고 二次大戰後의 冷戰의 狀況속에서 美國의 自由主義經濟

註 1) Harry G. Johnson, "The Political Economy of Opulence",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London, Sllen Unwin 1962.

註 2)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1967.

論을 謳歌하는 「人民資本主義」論과 連結된 形式에서, 「所有와 支配의 分離」論으로서 強調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유럽의 社会民主主義政党的 1950年代에 있어서의 一種의 標語가 되었고 다시 1960年代에 들어와서, 近代經濟學의 傳統的인 아카데미즘의 메카인 케임부리지의 經濟學者 Robin Marris 에 의하여 한층 더 아카데미한 方法에서 「經營者」資本主義로서 分析되기에 이른다.³⁾

이때의 Marris 의 分析視角은 「專門的 經營者」가 基軸이 되어 經濟社会 全体가 運營되어 진다는 것이다. 즉 이제 株式市場은 收益보다도 오히려 配當에 依하여 어느 会社の 株式을 評價하려는 傾向이 많아 진다. 따라서 經營者들은 「株式買入提案」의 魅力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株의 評價比率을 維持함으로써 그들의 支払希望 以上の 配當을 支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또한 現代에서는 資本의 蓄積過程에 있어서 私有財産制度의 不平等은 반드시 不可欠의 要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無用의 長物로서 바뀌고, 個人株主가 現代의 株式会社の 運營에 큰 寄与를 한다는 것은 없어진다. 즉 株는 機關株主에 의하여 많은 部分을 所有당하게 되고, 株式会社는 主로 減價償還基金과 留保利潤에 依하여 投資資金을 調達하는 傾向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新古典學派의 經濟學者들이 말하는 「節慾」과 「忍耐」를 必要로 하지 않고, 生産設備는 擴大되어 나간다.

이리하여 財産所得은 「忍耐의 報酬」가 아니고 有能한 株式仲介人을 雇傭하는데의 報酬가 된다. (George Robinson) 이어 1960年代 前半에서 Galbraith 의 所謂 「私的貧窮과 公的貧窮과

註3) Robin Marris, The Economic Theory of Managerial Capitalism, London, Macmillan, 1964.

의 共存」에 對한 富의 社會的 優秀性的 問題가 유럽 新資本主義 論의 中心的 標語로 登場한다.

다시 1960年代 後半이 되면, 未來社會에 對한 一種의 現代版 「유우토피아」思想이 왕성하게 提唱되기 시작하고, 世상의 注目を 받기에 이른다. 「이데오로기의 終幕」(Daniel Bell)에 의하면 世界는 이제 「工業化以後社會」혹은 「脱工業社會」의 문턱에 서 있고, 거기서는 舊式의 工場代身에, 理論的 知識에 重點을 두는 「知的諸組織」이 活動의 中心이 되고, 意志決定은 漸次로 技術的 性格을 強하게 갖게 된다.

한편, 꼭 같은 文脈에서 社會生活에서 中心的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 Ideopalis (理想都市)라고 말한 것은 Clark Kerr였다. Fritz Machlup도 知識產業의 急速한 發達에 注目한 사람이다.

한편 Kenneth E. Boulding는 世界는 「文明以後」社會의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말한다.⁴⁾ 이 段階에 이르면 世界는 「科學的 이데오로기」에 依하여 引導되면서 着實한 進歩를 보지만, 同時에 새로운 여러가지 問題에 直面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人口增加와 人類絶滅戰爭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것과 並行하여 組織된 集團에 依하여 支配되는 「組織革命」이 일어날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Herbert Marcuse는 「Technotronic」時代의 到來에 對하여 警告를 發한다.⁵⁾

이와같은 世界는 새로운 Technology와 Electronics가 產業組

註 4) Kenneth E. Boulding, The Meaning of the 20th Century, New York, Harper, 1965.

註 5)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Boston, Beacon Press, 1964.

織의 基礎가 되고, 그것이 資本主義的 管理下에 있는, 共產主義下에 있는, 人間의 內面的인 自由는 拋棄되고, 階級鬭爭 代身에 一種의 「大衆操縱」이 支配的이 되는것 같은 「一元的」社會가 된다는 것이다. 또 Clark Kerr는 多元的 産業社會라는 模型으로 一種의 管理社會論을 展開한다.

以上과 같은 여러 見解는, 合當與否는 고사하고, 現代産業社會의 特質을 包括的으로 把握하려고 한 說明原理이며, 構造模型인 것이다. 여기서 모두 그 基準으로 하는 支配階級은 實로 多彩롭다.

가령 勞動, 官僚, 知識人一般, 消費者, 專門的經營者, 技術者, 科學者等等, 또 거기서 起動力 役割을 하는 要因도 참으로 多樣하다.

가령 各 部門의 利益, 管理의 合理性, 消費者의 優越性, 會社의 遺産과 成長, 새로운 아이디어, 新技術等等. 그러나 이와같은 多樣한 見解속에서도 하나의 共通된 底流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現代産業社會가 生産力의 擴大와 工學의 놀라운 發展을 基軸으로 하여, 새로운 社會觀 내지는 歷史觀을 要求하는 새로운 段階에 들어 갔다는 認識이다. 그것은 程度의 差異는 있을 지언정, 모두 生物學的, 進化論的 歷史觀에 對하여도,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에 對하여도, 挑戰의 姿勢를 取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觀點에서 새로이 登場한 收斂理論的 社會觀은 現在 對立되어 있는 두개의 社會體制의 將來를 展望하는데 強力한 說明原理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收歛理論의 起源

2. 収斂理論의 起源

Convergence, Konvergenz 라는 概念의 語源을 보면 라틴어 Convergere 로서 "무엇에 기울어지다, 접근하다, 한 점에 모이다" 라는 뜻을 갖는다. 이 用語는 원래 自然科学分野에서 使用하던 것이고, 幾何學에서 두 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生物學에 있어서 生體 或은 比較的 類似한 環境의 適應으로 因하여 생기는 各器官의 機能이 類似性을 갖는 경우, 醫學에서 두 눈의 注視線이 한 점으로 집중하는 경우 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概念이 社會現象의 어느 特殊한 樣相을 說明하기 위해 社會科學者들, 特히 經濟學者들과 社會學者들에 의하여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

이 理論을 한마디로 말하면, 現代의 두개의 社會經濟的體制 즉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 사이에는 相互 接近의 現象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두 體制는 現在 同一한 技術的, 社會的, 經濟的課題를 안고 있고, 그것의 解決過程으로서의 未來의 發展方向은 반드시 비슷한 軌道에 오르리라는 結論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現在 存在할 수 있는 몇가지의 共通된 特徵을 確認하는데서 오는 말은 아니다. 마치 生物學에서 獅子와 羊이 같은 哺乳動物로서 共通點이 發見된다고 하여 이 概念이 適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概念은 共通된 特性이 發展過程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增加 즉 力動的過程을 통하여 두개의 社會體制가 結果적으로 서로 분란할 수 없을 程度로 變化를 이룰때를 말한다.

収斂에 관한 最初의 著書を 發表한 사람은 불란서의 經濟學者 Raymond Aron 이었다. 그는 1957年 "産業社會의 發達과 社會

的階層,¹⁾ 이라는 著書를 썼고 이어 社會主義的體制와 資本主義的體制를 産業社會의 두가지 型으로 보고 兩體制的 接近문제를 論한 "産業社會에 關한 18 講義,²⁾ 를 公開하였다. 1958년에는 美國의 經濟學者 W. Buckingham 에 의하여 나온 "比較的分析을 通하여 본 理論的經濟體制,³⁾ 란 論著가 있다. 그는 同著者가 實質的이고 機能的인 經濟的 體制는 相互逸脫보다는 相互接近으로 나타난다,⁴⁾ 라는것을 밝힌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著書의 마지막 部分 題目이 "하나의 單一的인 經濟體制를 向하여,"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美國의 蘇聯系 美國人 社會學者인 Pitirin A. Sorokin 이 1960年에 "美國과 蘇聯의 社會學的 文化的接近,⁵⁾ 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여 많은 사람들의 關心을 喚起시켰었고 또 이어 1964年 "現代의 基本動向,⁶⁾ 이라는 책을 著述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收斂理論에 關하여 보다 깊은 考察을

註 1) 參照 R. Aron,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 Frankfurt/Main und Hamburg 1964

2) R. Aron, Dix-huit leçons sur la société industrielle, Paris 1962. P. 246

3) Walter S. Buckingham, Theoretical Economic System. 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1958

4) Walter S. Buckinham, 前掲書 P. 26

5) Pitirim A. Sorokin, Soziologische und kulturelle Annäherungen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der Sowjetunion, Zeitschrift für Politik 誌에서 (Koln. Zurich, Wien) 1960. 제 4권

6) Pitirim A. Sorokin, The Basis Trends of Our Times, New Haven 1964

한 사람으로서는 빠트릴 수 없는 사람이 Jan Tinbergen이다.⁷⁾ 두 개의 社会經濟秩序의 接近過程에서 必然적으로 形成될 "現代産業社会, 는 收斂理論에 依하면 資本主義的이거나 社会主義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兩秩序의 短점이 止揚되어 長点的 統合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産業社会概念의 適用이 바로 收斂理論과 産業社会的觀念의 接점이 되고 있는데 이와 關聯해서 蘇聯의 經濟學者 E. Bregel 은 "兩体制를 同一視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正當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⁸⁾ 라고 했고 Rostow에 依해 代表되는 産業社会的 思考方式은 社会主義体制의 未來問題를 조금도 考慮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問題視되는 것은 現代 資本主義가 겪어야 할 科學技術的革命과 거기에 隨伴되는 人類의 將來에 關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전국 Rostow가 展開한 現代社会的 發展段階說은 資本主義社会에서만 適用될 性質의 것이어서 獨은 反共的理論의 再版에 不適當한 셈이다. 그의 主張인즉 社会主義는 歷史的 發展의 歪曲이며 結局은 後退를 免치 못하는 사도인 것뿐인데 그에 比하면 收斂理論은 社会体制의 正當性和 몇가지의 長점을 認定하고 있으며 反共的 思考를 止揚하고 社会主義体制의 發展可能性과 將次的 社会發展過程에서의 兩体制의 相互作用도 拳論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自由陣營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問題提起가 收斂理論에는 있다는 점에서 이 理論의 特色이 찾아지는 것이다.

註 7) Jan Tinbergen. Do Communist and Free Economies Show a converging pattern? "Soviet" 誌에서 4月 1961年

8) Of. E. Bregel. Die beiden sozialökonomischen Systeme und die bürgerliche Konvergenztheorie "Einheit" 誌에서, Berlin 1968. 4.5 卷 p.499.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點은 收斂理論의 理論家들이 대체로 自由陣營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點이다. 그러기에 共產陣營의 人士들은 이런 現象을 이 理論이 그 問題提起의 性格과 政策과의 關性으로 보아 自明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西獨의 경우에서 찾고 있는데 西獨에서는 Rostow의 産業社會 理論은 재빨리 紹介되고 普及되었지만 收斂理論에 關한限 오래 동안 뿌리를 박지 못했었고 다만 몇개의 國外學者들에 依한 論文만 翻譯된바 있다. 이것은 즉 60年代初의 西獨의 政策이 相異한 社會經濟的體制의 共存과 그의 接近 혹은 協同을 可能케 하는 어떠한 要因도 認定할 수 없는 것에서 온것이다. 西獨의 國是가 바로 東獨領土의 吸收에 있었고 그곳의 社會體制의 自由化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西獨의 公式的 政策이 이러한 接近理論을 容認하게 되고 그 適用을 試圖하게 된 経緯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西獨 學者들이 收斂理論이 社會主義의 變遷과 非社會主義的轉向의 前提를 內包하고 있다는 點을 알게 된데에 있었다. 帝國主義的 理論構成家들은 收斂理論家들의 理論的, 方法論的, 問題提起나 自由로운 政治的인 見解에는 興味가 없고 오직 政策的인 適用可能性에만 關心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收斂理論이 露骨的인 反共理論이나 Rostow式 産業社會說보다는 共產國家에 對한 보다 나은 對決思想이라는 것이 判明된 1963年과 1964年부터는 西獨에서의 社會科學的, 政治的言論은 收斂理論的 方向으로 나아가게 된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見解에도 不拘하고 收斂理論은 그 理論이 갖는 現實性和 政治的 機能의 效率性으로 보아 兩體制의 어느 陣營도 無視못하는 理論으로 登場한 것이다. 사실 兩體制에는 生産樣式의 類似한 社會化段階, 技術의 類似한 發達狀況,

一定한 問題에 關한 科學的探究의 類似한 發展傾向이라는 共通性이 있는만큼, 그것이 어떠한 이데오로기의 影響 밑에 있든지 간에, 收斂理論家들은 이러한 事實을 土台로 그들의 理論을 展開해 나가리라는 것이 明白하다. 그러나 그 結論이 무엇이며, 이러한 觀察에서 導出될 수 있는, 아니 理論적으로 一般化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 즉 하나의 現象을 理論적인 概念으로 다듬기 위하여 어떠한 中間物을 挾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收斂理論이 안고있는 課題인 것이다.

3. 收斂理論의 經濟學的側面

3. 收斂理論의 經濟學的 側面

收斂理論家들의 論證의 根本은 經濟的 諸現象이다. 즉 兩社會經濟的體制에 있어서의 發展段階와 到達된 科學技術水準은 類似性을 갖고 있으며 결국은 收斂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美國과 蘇聯을 兩體制的 代表國으로서 자주 比較의 對象으로 삼게 된다. 사실 이 兩國사이에는 現在로서는 모두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의 가장 發達된 나라로서, 科學技術의 發達에 있어서나, 工學과 農工業의 發達水準에 있어서나 根本的인 差異點을 發見할 수 없다는 점에서 比較의 妥當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收斂理論家들은 社會의 經濟的, 技術的 發展과 有關係한 모든 다른 分野의 문제들도 原則적으로 같은 性質의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때에 이들은 方法論적으로 이미 產業社會概念에서 엿볼 수 있었던 方式을 取하여 모든 社會的 問題를 經濟技術的인 問題로부터 導出해낸다. 그러나 그들은 現存하는 狀況뿐만이 아니라 將次的 發展도 함께 考慮해야 하기에 이 理論의 代表者는 이 兩社會體制에 있어서의 經濟的, 技術的, 發展은 兩體制的 永統的인 接近을 實現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네델란드의 經濟學者 Jan Tinbergen 은 이러한 過程을 다음과 같이 想定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에서 볼 수 있는 옛날의 平準化傾向은 克服되고 物質的인 生産刺戟은 더욱 더 큰 意義를 갖는다. 企劃은 分化되어, 가장 現代的인 計劃方法이 適用되며, 經營에 參與하는 幹部들의 教育도 날로 向上되어 간다. 資本主義社會에서도 計劃의 必要性은 날이 갈 수록 強調된다. 經營의 公的인 範圍는 漸次的으로 擴大되어 가고, 稅務政策과 이와 비슷한 措置는 企業家의 活動制限을 더욱 더 심하게 한다.

만일 兩体制에서의 이러한 傾向이 繼續 維持된다고 한다면, 結果的으로는 兩体制의 長점이 合一하는 經濟가 생길 것임이 틀림없다. 라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美國의 理論家 John.K.Galbraith 도 “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收斂傾向 ”에 대하여 言及하고, 아래와 같이 結論짓고 있다. “ 發展은 結局 어느 程度 近似한 計劃, 組織形態로 이끌어갈 것이다.”⁽¹⁾ 그런데 그의 이 問題에 關한 意義賦与는 다음과 같은 見解에서 表明되고 있다. “ 現在로서 가장 興味있는 現象은, 모두 일찌기 資本主義的이고 共產主義적이었던 두 社會가 이제는 서로 利害에 얽힌 여러 社會들 中에서의 支配的 位置를 占하면서 점점 類似性을 갖는 점이다.”⁽²⁾

그리고 또 역시 오랫동안 美國에 居住하고 있는 독일의 經濟學者 Fritz Sternberg 도 “ 모든것을 綜合하여 보건데, 地球上的 모든 民族과 國家는 結局 相互接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³⁾ 라고 말하고 있다.

함부르크 共同經濟研究院 幹部이며 오랫동안 院長이기도 했던 西獨의 經濟學者 Heiz - Dietrich Ortlich 亦是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즉 “ 世界的인 權力政治는 早晚間 西方側으로 하여금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完全한 計劃經濟를 採択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 市場經濟型態를 取하느냐 計劃經濟型態를 取하느냐하는 曷은 論爭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興味밖의 일로 되어버렸다 ”

註(1) J.K.Galbraith,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München-Zurich .P. 429

註(2) 前掲書 P. 430

註(3) F.Sternberg, Wer beherrscht die zweite Hälfte des 20. Jahrhunderts ? Köln 1961. P. 333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서 兩秩序体制의 結合을 通하여 얻은 이러한 社會經濟的인 事件을 어떻게 調整할 수 있을 것인가”⁽⁴⁾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Bernhard Kopp도 “統合으로 나아가는 自由主義와 社會主義”⁽⁵⁾ 라는 그의 著書에서 前者들과 비슷한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Hans Rühle von Lilienstern과 Gert von Eynern도 역시 이러한 綜合경향을 予言하고 있다.⁽⁶⁾

그러면 이러한 論理過程을 批判的으로 分析해 보면서 兩体制間의 理論家들에게서 提起될 수 있는 몇가지 問題點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社會主義体制에 있어서 社會考察의 基本課題라 할 수 있는 生産手段의 所有權문제는 어떠한가 하는것이다.

Aron은 “産業社會”의 西方的 그리고 蘇聯的 變異사이에 存在하는 生産手段의 所有權問題의 差異는 “些少한 問題”라고 보고 있다. 역시 대부분의 收斂理論家들도 各其 紐安스는 다르지만 現代經濟에 있어서는 生産施設이 누구에게 所屬되느냐. 投資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生産過程의 管理者가 누가 되느냐하는 것과 그 管理方法이라고 한다.

註(4) H.-D. Ortlieb, Das Ende des Wirtschafts-wunders, Wiesbaden 1962 P. 160

註(5) B.Kopp, Liberalismus und Sozialismus auf dem Wege zur Synthese, Verlag Anton Haus, Maisenheim am Glan 1964

註(6) H.Rühle von Lilienstern, Die Industriewirtschaft von morgen, Econ, Verlag Diesseldorf-Wien 1965 : G.V.Eynern, Grundriss der politischen Wissenschaftslehre, Westdeutscher Verlag, Köln und Opladen 1968

대나하면 現代의 生産集中的에 있어서는 大多數의 株主로서 構成되는 資本社會에 依하여 大企業이 運營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이 株主들은 配當金의 形式으로 그들의 投資를 現金化는 하지만, 實際的인 企業政策(生産計劃, 投資決定과 같은 것)에는 何等の 影響을 미칠 수 없게 되어있다. 生産管理나 會社一般에 關한 支配權은 當額의 報酬는 받으나 大體로 投資에 參加하지 않는 社長이나 經營幹部들의 手中에 있는것이다. 이러한 事實에서 보면 資本主義든 社會主義든 間에 大企業體의 管理運營은 高額의 報酬를 받으며 優秀한 能力의 所有者인 雇用人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어서, 그들의 決定과 影響力은 兩體制에 있어서 더욱 더 重要性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生産手段의 所有權문제는 企業의 實際的인 運營面에서는 날이 갈수록 無意味해지는 것이며 結局 兩體制의 接近過程에 아무런 妨害要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論理는 일찌기 James Burnham의 所論에서 찾아 볼 수도 있다. 그는 1941년 “經營者革命”이라는 그의 著書에서 그에 대한 基本概念을 披擲한바 있다.⁽⁷⁾ 그러나 Burnham이 이 所有權문제를 다만 資本主義的立場에서 觀察한데 比하여, 收斂理論家들은 社會主義體制에까지 이 問題提起를 擴大하고 兩社會經濟體制의 接近에 대한 論證으로서 利用하고 있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中央集權化와 規制가 強化되는데 反하여 社會主義社會에서는 分權化와 自由化가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는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가 없어지고, 經營의 自律化가 形成될 것이며, 그러므로서 初期에는 政治的 習性으로 若干의 社會主義的色彩가 加味될 市場經濟가 發生할 것이라는 것이다.

註(7) J. Burnham, The managerial Reualution, New York 1941

그리하여 社會主義體制는 漸次的으로 現代資本主義社會와 類似하게 된다는 主張이다. 지금 社會主義國家群에서 行해지고 있는 經濟的 改革은 이러한 過程의 좋은 參考가 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諸國에서 經濟制度의 效率化를 위한 論議가 있었고 이어 融通性있는 經濟計劃이 樹立되기 시작하므로써 經營決定權과 責任이 國民經濟의 各管理分野에로 擴大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바로 이점에 對한 西方陣營의 論評을 보면 “經濟의 利潤性을 追求하고 市場經濟形成으로 内外를 代表하겠는 새로운 所望이라고 하고 있다. (8) 이에 關聯된 蘇聯에 關하여는 “Daily Telegraph” 紙가 다음과 같이 論評한바 있다. “計劃槩構가 相當한 範圍로 解体되었고 市場經濟로 代置되었다. 라고”. (9) 그리고 Frankfurter Allgemeine 紙는 分明히 收斂理論的인 立場에서, 새로운 經濟體制에서 보여 준 經濟政策은 Marx와 Lenin의 理論과 모순되지 않는 方向에서 “西方側 經濟體制에 接近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었다. (10)

이와 비슷한 論擧는 오늘날 많은 經濟學者들에 依하여 되풀이 主張되고 있는데, 西獨의 東方政策專問家 Hans Raupach는 1968년 어느 公開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이 새로운 計劃 構想은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經營經濟的인 規準을 利用한 것이다. 이것은 結局 西方側에서는 資本主義로 돌아오는 始初로 解

註(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7 ~ 8. Mai 1964

註(9) E. Bregel의 引用 Die beiden sozialökonomischen Systeme und die bürgerliche Konvergenztheorie, Einheit 誌에서 Berlin 4/5 差 1968. P. 504

註(1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6 April 1964. P. 13

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¹⁾ 라고. 이러한 現象들은 모두 收斂理論을 뒷받침해주는 셈이 된다. 社會主義諸國들도 어느 程度의 經濟的 發達을 이룩하면 社會主義的인 計劃方式은 더 以上の 效用性을 잃게 되고 結局 資本主義的인 經營管理体制를 導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現代的인 技術은 오늘날 兩体制의 發達段階에서는 原則적으로 同一한 性格을 갖고 있다.

따라서 生産技術的인 構造의 制約을 받게되는 現代的인 大規模生産을 爲한 組織과 管理는 많은 類似性을 낼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諸國에서 獲保된 現代的인 生産管理에 關한 새로운 知識들이 社會主義 諸國에서 修正된 形式으로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은 妥當한 일이기도 한것이다.

이러한 例는 가령 새로히 開拓된 몇가지의 數學方法和 經濟에 있어서의 그 適用에서도 찾을 수 있다. 反對的인 境遇로선 社會主義諸國에 있어서의 特定の 計劃運營이 資本主義經濟体制에서 研究되고, 制限된 可能範圍속에서의 利用이 試圖되고도 있다. 가령 社會主義的 計劃과 決算의 經驗에 依한 原則위에서 Leontieff에 依한 Input-output 방식의 完成이 그것이다. 이것은 Leontieff 自身이 蘇聯에서 導入한 投入產出 方法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資本主義가 언젠가는 社會主義的인 것이 된다든지 社會主義속에 資本主義的 經濟方法이 導入된다든지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現代의 生産力이 갖는 社會的 性格에서 由来되는 數學的, 統計的 또는 組織的인 것들이 問題된다는 것이다.

註(1) H.Raupach, Kapital und Management in sozialistischen Volkswirtschaften, Schmolders 年刊紙에서. 1968 5 卷 P.519

아문든 收 理論家들은 社会主義社会에서 資本主義的 要素를 漸次 受容하게 되므로서 結局은 制度에 内包된 社会經濟的인 本質도 變하지 않을가하는 希望은 갖고 있다. 이러한 立場을 極端的인 形式에서 規定지은 사람은 Hermann Achminow이다.

“技術知識이 個人的 主導權을 合法化하고, 經營과 利潤參與에 더 많은 權限을 부여하고 이리하여 經濟的인 環境變化가 利潤原則을 要求하게 되면, 計劃經濟와 共產體制를 結局 互解시키고 마는 市場經濟가 登場하게 될것이다.”⁽¹²⁾ 라고 했는데 이와 比較하여, 社会主義陣營에 대한 西方의 思想的侵透를 어느 程度 認定하면서도 보다 相對方을 說得하기 위한 語調로서 主張하는 사람이 西獨의 東方專門家 Hans Raupach이다. 그는 어느 諸演席上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投資財政의 資本主義體制가 갖는 優秀性은 社会主義에서의 社会主義化 過程에서 自然히 消滅된 資本市場을 위한 標準價格의 等價物이 造成되지 않는한 維持될 수 없다.”⁽¹³⁾ ...라고.

Raupach는 社会主義體制에 있어서의 市場經濟的 要素의 必要性이 直接 資本市場과 關聯된다고 하고, 資本의 復活과 그것의 自由化를 追求하였지만, Lillienstern은 市場經濟一般을 將次的 “産業社会”가 어떠한 形態이든간에, 가장 基本的인 要素인 것으로 看做한다”라고 했다. 여기에선 결국 이데올로기가 溶化된 새로운 世界는 市場經濟가 支配할 것이고, 이 市場은 經濟的均衡의 基盤으로 登場할것이다.”⁽¹⁴⁾ 라는 것이다. 그는 社会主義的 經濟體制的 決定的 要素인 中央集權的인 經濟計劃의 意義가 이것으로서 強化되는데 대해서

註(12) Neue Gesellschaft, 1964. 5 卷. P.422

註(13) H.Raupach 前掲書 P.522

註(14) H.Raupach 前掲書 P.30

는 確信을 갖고 있는듯 하다. “統制와 市場經濟사이의 角逐論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兩体制의 評価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複雜化된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兩側이 다 必要로 하는 要因이기 때문이다. 다만 重要한 것은 処方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5)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몇몇 社會主義 理論家들 사이에 共感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은 놀라울 일은 아니다. 最近에는 이 문제에 關해서 여러 共產國家에서 社會主義經濟体制의 發展과 效率的인 編成을 爲해서 市場의 開放이 必要한 것이 아닌가고 論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收斂理論의 論證과 內容的으로 一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收斂理論의 經濟的인 側面으로서의 가장 重要한 部分은 社會經濟体制 속에서의 人民經濟的인 觀点を 個人企業에 있어서의 經營方式이란 視角에서 診斷한다는 点이다.

즉 資本主義的 經營方式과 社會主義的 經營方式에 있어서 作業能率의 比較, 決定過程, 專門家の 協同, 責任管轄의 配分, 作業組織문제 등의 比較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많은 類似性和 類比를 確認하고, 이 分野에 있어서의 收斂現象이 社會經濟의 發展過程에 따라 漸次的으로 增大되어 감을 論證해 주는데 아주 재미있는 研究部門인 것이다.

註(5) 前掲書 P.118

4. 收斂理論의 社會學的側面

4 . 收斂理論의 社會學的 側面

收斂理論의 社會學的 根柢는 이 理論이 經濟學的의 現實과 經濟的 領域에만 局限될 것이 아니고, 社會發達の 全般에 그 應用範圍를 擴大시켜, 社會生活의 各領域에서 이 理論의 論證을 찾아야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도 技術科學的, 經濟的 發達로 인한 所謂 “現代的 産業社會”가 論題의 出發點이 되고, 따라서 이 理論의 經濟的 側面과 社會的 側面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社會學的인 論證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有名한 西獨의 理論家 Helmut Schelsky가 그의 著書 “獨逸社會學的의 場決定”에서 發表한 것이 있다. “가장 重要한 産業社會的인 問題들과 行動規準, 이를테면 大都市生活의 産業活動, 消費生活, 文化教育狀況, 매스·콤機關 등등은 서로 對立되는 政治體制, 가령 美國과 蘇聯같은데 있어서도 그 樣相은 날로 비슷해가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社會的인 收斂現象은, 立場은 모두 다르지만 現代 社會學的의 中心論題가 되어 있고 조금도 後退할 기미가 없다.”¹⁾ “未來世界를 위한 諸類型”이란 叢書의 發行者인 Hans Joseph Mundt도 다음과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技術化된 現代社會는 그것이 資本主義的 與件이든 社會主義的 與件이든간에 兩體制는 그 全體에 있어서 類似性을 갖는 하나의 社會的 現實로 誘導되어 나아갈 것이다.”²⁾ ...라고 또 이 叢書의 “1985년

註 1) H. Schelsky, Ortsbestimmung des deutschen Soziologie
Dusseldorf/Koln 1959. P136

註 2) H. T. Mundt, KompaBzahl 2000, Synthese und Neuorientierung... Wege ins neue Jahrtausend : Munchen/Wien/Basel
1964 P.2

의 세계"란 論著에도 "將次 技術知識이 普及되고 專門的 研究活動이 모든 産業國家들에 의해서 施行되므로서, 産業國家들 사이에 存在 하였던 技術的 經濟的 能力的 不均衡은 解消되고 말 것이다."³⁾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의 結論에는 "이리하여 1985년에는 이미 超國家的인 經濟單位나 團體가 存在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서로 広範圍한 分業이 形成되어 서로 強化된 商行為로 密接하게 連結되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⁴⁾ 勿論 相互間의 政治的인 見解差異는 繼續할 것이지만, 보다 現代的인 生産販賣方式의 影響으로 方法과 概念에서 나타나는 差異點은 軟化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見解를 갖는 이로서는 Ralf Dahrendorf와 Fritz Baade 등이 있다. 이러한 主張의 根拠는 대개 社会的 發達は 直接的으로 技術, 經濟的인 發達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收斂現象을 經濟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社会的인 領域, 特殊領域이나 特殊制度의 分野에서도 이 理論의 現實性을 論證하려는 試圖도 행하여지고 있다.

美國人 Pitirim Sorokin이 西獨에서 發表한 "美國과 蘇聯사이에서 나타난 社會學的, 文化的 接近에 關한 研究"⁵⁾에서 美國과 蘇聯에서의 教育制度에 對한 類似性을 指摘하고 있다. 그는 여기

註3) Unsere Welt 1985, Modelle für eine neue Welt, Verlag Kurt Desch München/Wien/Basel 1967. P.291

註4) 前掲書 P.293

註5) P.A. Sorokin Soziologische und Kulturelle Annäherung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des Sowjetunion: Zeitschrift für Politik, Kolm/Zürich/Wien 1960/4 卷에서

서 蘇聯의 教育分野에서 成就한 業績을 높이 評価하고 "오늘날 共產黨員들의 教育水準은 美國 上流階層의 教育水準과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다" 6) 라고 말하고, 資本主義國家나 社會主義國家들의 先進國에서는 教育制度에 있어서는 相互接近의 傾向이 있는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고있다. 역시 西獨의 言論들도 "分斷된 西獨사이에는 産業國家的 그리고 産業社會的인 發達이 進行되어서, 比較的 類似的한 法則性이 支配하게 되었고 社會體制가 어떠한 것이든간에, 어떤 確定된, 그럼으로서 比較的 類似的한 客觀的인 反應이 要求되기에 이르렀다" 7) 라고 하였다. 이러한 西方側의 教育文化的 側面에서의 接近說에 對하여 東方側 理論家들의 反駁을 參考的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的 教育制度는 옛날의 支配階級에 依하여 独占되었던 教育을 打破하고, 社會의 모든 構成員들에게 各自의 能力에 알맞는 教育을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있다. 더욱이, 各自의 素質을 啓發하고, 이제까지 認識되지 못하였던 能力을 發掘하는데 힘쓴다. 이것은 바로 人格啓發이 社會的 條件과 密接한 關係에 있다는 것을 말할뿐 아니라,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科學的, 技術的 需要에 質·量兩間의 適應이 何等의 矛盾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反하여 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는 教育의 危機가 論難되고 教育制度와 大學의 改革에 對한 要求가 높아져가고 있다는것이다.

둘째, 教育이란 知識傳達 機能 以外에도 가장 重要한 機能으로서 人間形成問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兩體制와 密接한 人間像, 世界像問題와 結付되기 때문에 教育의 比較한 이 점을 빠트려서는 안되

註 6) 前掲書, P.295

註 7) H.Voigt, Bildung für die Zukunft, Vandenhoeak und Ruprecht, Göttingen 1967, P.10/12

는 법이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接近的思考의 幻想을 發見할 수 있다. 遙遠한 人間主義的인 靑少年教育과 文化性이 豊富한 個性과,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높은 公德心을 갖춘, 人格의 函養을 위하여 努力하는 社會主義教育은 文化的, 人間的 價値의 蔑視傾向이 날로 높아가고, 人間思考와 感情이 現代의 大衆傳達方式에 依하여 操作되고 平均化되어가는 資本主義社會와는 좋은 對照가 될 것이다. 이러한 對應은 東西獨의 경우 顯著히 나타난다. 問題는 教育에 있어서의 知識의 量이 아니라 教育의 內容인만큼, 類似性의 문제는 正鵠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고있다. 8)

Sorokin은 또한 社會科學과 哲學分野에 있어서의 類似性에 대하여도 言及하였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시즘의 發達과 成熟過程은 西方側 이데올로기와의 接近을 證明해주는 좋은 例라는 것이다. 즉 "過去 20년간 蘇聯의 學者들은 歷史, 心理學, 精神醫學, 倫理學 그리고 其他의 社會心理學的인 分野에서 많은 分量의 一流級 理論을 發表하였지만, 하나도 弁證法的 唯物論의 色彩라든가, 어떤 다른 唯物論的인 立場에서 研究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9) 는 것이다. 그는 또한 弁證法的 唯物論에서 볼 수 있는 "廢鎖的인 理想主義"와 "客觀的인 理想主義"와의 類似性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있다. 거기에서 Sorokin은 "또 이와는 反對로 大部分의 美國의 哲學者들은 너무나 理想主義的이고 理性為主이며, 오히려 "統合的"이라고 할 수 있을 傾向에 속한다고한다. 그러나 그들

註8) Herbert Meibner, Konvergenztheorie und Realität, Akademie Verlag, Berlin 1969. pp.79

註9) P.A.Sorokin 前掲書 P.349

의 思考方式에서는 非唯物的인 世界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唯物論的인 아닌가 할 程度의 色彩를 많이 보이고 있다" 10) ...라고 여기서 우리는 어느 程度 哲學과 世界觀問題는 技術, 經濟的인 分野에서의 收斂現象보다는 論證의 虛弱性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Sorokin의 唯物論者를 觀念論者로, 觀念論者를 唯物論者로 代置하는 式의 接近理論은 너무나 相異한 論理라 아니 할 수 없다.

收斂理論의 社會學的 論拠를 提示한 人들중에서 有名한 美國의 經濟學者 John Kenneth Galbraith를 빠트릴 수 없다. 이미 引用한바 있지만 그의 著書 "現代 産業社會"에 包含된 그의 理論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아주 意義가 크다. 그가 過去 自由世界에서 차지한 政治的 比重과 現代 資本主義發達理論家로서의 그의 卓越한 業績은 아주 括目할만하다. 英國 勞動黨의 指導的 理論家인 John Strachy도 한때 Galbraith를 現代 資本主義의 가장 卓越한 經濟理論家로서 指目한 일이 있다. 여기서 引用하려는 그의 最近의 著書는 1967年 美國에서 發刊되어 곧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1968年에 이미 獨逸語版이 나와 3萬部가 買売된것은 그의 思想의 大衆에 대한 影響力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取扱하려는 것은 그가 이 책에서 論한 收斂理論的인 部分만이다.

Galbraith는 現代生産의 工學과 組織은 自動的으로 體制의 收斂으로 誘導된다는 前提에서 出發한다. 즉 "經濟體制의 形式은

註10) 前掲書 P.352

이네.올로기가 아니라 工學과 組織의 要求에 의해서 決定된다" 11)고 말하고 있다. 어떠한 經濟體制에 있어서도 現代的 生産의 工學과 組織은 一定한 構造와 一定한, 技術的인 條件下에 있는 權力關係, 그리고 그것에 対応하는 同一한 目的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모든 西方側 理論家들과는 그 見解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理論의 特徵은 특히 西獨에서 主張되고 있는, "現代 資本主義와 社會主義的 發展過程에선 市場經濟論的인 思考方式이 나타난다"라는 理論에 贊成하고 있지않다는 점이다. 그는 現代的 生産力은 生産의 計劃과 規制가 그 必須的인 條件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美國에 있어서의 生産의 中央調節과 統制, 市場과 消費者의 操作이 얼마나 높은 水準에 到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興味로운 美國經濟의 現地資料를 提示하고 있다. 西獨의 理論家들이 아직도 數十年동안 絶對的인 것이라고 생각해 오던 하나의 公式, 즉 市場經濟는 곧 自由와 通하고, 計劃經濟는 곧 獨裁라는 思考方式을 새로운 技術科學的인 發展樣式에 應用하려는데 반하여, Galbraith는 이것을 하나의 退任된 市場經濟的인 유토피아論으로 보고 "無制限의 自由競争을 要求하는 者는 自由企業體制의 職業的인 辯護人과 純粹藝術의 擁護者들 뿐이다" 12)라고 指摘한다. 그는 또한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經濟改革을 다른 西方側 理論家나 言論家들과는 달리 中央集權的인 經濟統制의 漸進的인 崩壞라고는 보지 않는다.

註 11) J.K.Galbraith,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Droemersch Verlagsgesellschaft Ch.Knauer Nachfolger München/Zürich 1968. P.19

註 12) 前掲書 P.64

● 蘇聯의 大企業의 生産과 生産手段과 勞動力供給 - 즉 生産決定-에 있어서는 企業이 統制없는 市場으로 隸屬되어가는 傾向이라고 現在로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現在의 工學의 狀態로서는, 工學과 關聯된 時間과 資本의 消費라든지, 市場機能에 工學이 影響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蘇聯, 美國 兩國에서는 아직 不可能한 問題인 것이다. 13) 大部分의 西方側 理論家들과는 달리 Galbraith의 收斂理論은 若干의 調節統制의 色彩를 띄는 基本的인 面에서의 市場經濟秩序의 造成에서 出發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資本主義的인 或은 社會主義的인 條件下에서 中央集權的인 計劃統制를 隨伴하는 生産의 効率的인 高度의 集中에서부터 出發한다. 現代의 大企業과 現代의 社會主義的인 管理機構는 같은 目的에 奉仕하는 두개의 相異한 機構이다. 14)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Galbraith는 "管理機構"의 推象的 類似性的의 比較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 꼭 같이 適用되는 새로운 社會的 關聯性和 法則性을 發見해보려고 했다. 이러한 試圖에서 그는 工學과 統制에서 發生되는 要求가 專門家에 對한 企業産業의 需要와 組織化된 配置의 必要性을 漸次的으로 높여주었다는 狀況에 直面한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재빨리 다음과 같은 廣範圍한 結論에 到達했는데 그것은 즉 "産業體制는 여기서 大部分 그의 影響圈 밖에 存在하는 潛在力을 捕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業體는 資本으로서 自身을 돌볼 수 있을지 모르나 專門技術者群에 對해서는 그렇게 되자 않는다..... 過去의 經驗으로 보아

註 13) 前掲書 P.128

註 14) 前掲書 P.128

하나의 새로운 權力移動은 期待될만하다고 하였다. 現代資本主義의 銳利한 觀察者로서 Galbraith는, 科學이 資本主義的 生産에 있어서 相當히 큰 役割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物質生産과 科學의 相互作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認識했는 것이다.

物質生産의 科學化와 더불어 資本은 漸次的으로 科學에 隸屬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科學研究와 그 結果의 生産技術的인 應用은 抽象的이고 眞空狀態에서 行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勘當할만큼의 訓練과 經驗과 能力을 가진 人間과 直結되는 문제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專門技術家들(技師, 技術者, 經驗者, 프로그램作成者, 資料處理者, 社會心理學者, 數學家 등등)의 役割과 意義는 現在로서 相當히 크다는 것은 疑心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現代技術의 發達狀態에서 起因하는 것이므로, 原則적으로 資本主義에 있어서나 社會主義에 있어서 다를바 없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고, 그 意義도 兩社會體制에서는 共通的으로 重大한 것임은 말할나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Galbraith는 如上한 理論으로 그의 論理展開의 大綱을 끝내고, 結論을 지었는데 그結論部分에서 비로소 問題點이 露出되었다. 즉 確認된 事實들에 對한 社會學的인 解折과 分類, 該當 또는 社會的 聯関性과, 論理的 歸結에 對한 分析과 理論的 說明에 關한 문제등이 바로 그것이다.

Galbraith의 主張인즉 專門家群은 그들의 不可欠性으로 因하여, 어느 程度의 獨立性을 獲得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社會的인 權力位置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動機誘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項目을 設定했었는데 이것은 이러한 專門家들이 찾아할 經濟的 建策과 決定權을 말한것이다. 利潤追求는 經濟活動의 動機인데 이 專門家들은 資本所有權에 參與하지 않으므로써 利潤과는 無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새로운 支配機能으로서의 經營을 Galbraith 는 위와같이 相當히 狹小한 範圍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는 經營에 參與하는 큰 幹部들, 監査役들, 그리고 其他의 雇傭幹部들은 그 決定權에 있어서 完全히 獨立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여러 情報과 情報處理, 專門家들, 各 分野에 걸친 專門家들에 依한 建議와 研究結果등을 必要로 한다고했고 이러한 專門家群을 그는 "테크노스라크추어工学構造" 라는 概念으로 特徵지유했었다. 즉 "이러한 集團은 그 規模가 相當히 큰것이다. 그것은 企業의 上部指導層에서부터 監督, 職工長, 職工에 까지 이르는데 여기에는 專門知識, 特殊能力 혹은 經驗을 集團적으로 構成하여 決定에 參與하는 사람들이 屬하는것이다.

集團的 決定에 參與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機能을 나타내는 組織의 名稱은 없으나 그는 이러한 組織을 "工学構造" 라고 表現할 것을 提議한것이다.¹⁷⁾ 이러한 Galbraith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企業의 最高幹部에서 職工에 이르기까지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모두 經濟的 決定에 參與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는 社會的, 經濟的 利害對立은 없으니 모두 함께 새로운 社會的 階層인 "工学構造"에 所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生産行爲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 最高幹部에서부터

註 17) 前掲書 P.75

職工에 이르기까지 모두 單一的인 社会階層이라고 보는데는 問題가 있다.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人間의 相異한 地位, 서로 다른 社会的 位置, 收入의 差異, 이러한 要因들로부터 歸結되는 相異한 部分的으로는 對立까지 되는 經濟的 利害關係 - 여기서 由來하기 쉬운 相異한 政治的 利害와 行爲 - 등을 그는 단순히 默殺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見解에 依하면 이러한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生産의 各段階와 여러가지 形式에서 이루어지는 企業決定에 所屬員들이 參與한다는 것은 새로운 相互間을 結束하는 基準으로 看做되기 때문이다. 이 工学構造는 이제까지 自由陣營의 理論家들이 主張하는 經營者支配도 아니고 共產陣營의 修正主義者들이 要求하는 知識人の 支配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經濟와 社会에 參與할 수 있는 새로운 調和된 "國民共同社会"인 것이다.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資本의 權限이 崩壞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共產黨의 權勢와 이데올로기가 消滅되어 가리라는 것이다. 이미 한때 主張되었던 "國民資本主義"라는 方法論과는 달리 調和있고 矛盾없는 "産業社会"라는 이 새로운 概念은 그 根拠를 所有權關係에서 抽出한 것은 아니다. 이 國民資本主義論者들은 모든 國民들에게 國民株式을 갖게 함으로써 所有權者가 되게하고 經濟的, 社会的 權力을 賦與케 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思考는 지극히 非現實的이고, 사실이 實現을 爲한 實際的인 試圖에서도 失敗한 적이 있다. 여기에 있어서의 中心課題는 所有權문제이었다. Galbraith는 이 所有權문제를 度外視하였고, 現代 大量生産이라는 現象을 現實的인 契機와 理論的인 觀點에서, 技術, 經濟的인 條件을 觀察함으로써 그의 所謂 "單一的인 産業社会"論을 展開시킨 것이다. 이것으로서 그는 또한 自由陣營의 代議政治에서 導出한 經濟民主主義라는 社会民主主義的

인 幻想 과도 그 次元을 달리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現代 大量 生産을 社會學的으로 大觀함으로써 兩社會體制의 收斂現象에 대한 새로운 論證을 試圖한 것이다. 여러 社會制度의 收斂現象에 關한 社會學的 論擲의 하나로서 現代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役割에 關한 문제가 있다. 50年代末期부터 많은 刊行物에서 다음과 같은 意見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技術, 經濟, 社會의 發展에서 나타나게 되는 同一性은, 이제 體制를 달리하는 東西陣營에, 같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고 따라서 이 問題解決을 爲한 理論展開는 同一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趨向에서 본다면 兩體制의 이데올로기의 對立은 漸次的으로 無意味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終來" "이데올로기時代의 終幕" 이라는 題目的 書籍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바 "現代의 解剖"라는 책에서 David Norowity는 말하고 있다. "資本主義對 社會主義"의 싸움은 經濟統制의 量的인 것과 質的인 것의 싸움으로 還元됨으로, 對立되는 이데올로기의 對立感情은 純化되고 말 것이다" 18) 여기서 또 그는 脫이데올로기의 現象은 蘇聯圈에서도 始作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H. Raupach는 "蘇聯의 社會經濟論을 研究할적에는 되도록이면 이데올로기와 理論을 區別하라" 19) 라고 말한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蘇聯經濟의 現在의 狀況과 傾向은 學問적으로는 이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經濟解放이라고 特徵지을 수 있다" 20) 라고 말한다.

註 18) D. Horowity, Anatomie unserer Zeit-Kapitalismus und Sozialismus in Schmelztiegel Europa Verlag, Wien/Frankfurt/Zurich/Stuttgart 1964. P. 65

註 19) H. Raupach, Wirtschaft und Politik in Osteuropa, Duncker und Humblot, Berlin 1968. P. 150

註 20) 前掲書 P. 151

西獨에서 出版된 어느 또 다른 書籍에서는,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란 19世紀의 產物인 것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世上에서는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다…… 萬一 우리가 急tempo로 變하는 現代의 社会的制度를 明確히 理解한다면, 우리들에게 익숙한 理論들은 이미 過去에 속하는 것이고, 未來에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그러한 理論에 執着하여서는 안된다는 事實을 直視하지 않으면 안된다.”⁽²⁾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科学的, 技術的 革命이 이데올로기 株殺의 趨勢로 물고간다는데 대해서 反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Karl Steinbuch는 現代의 科学과 技術은 人類에게 特定한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한 手段을 供給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手段이 점점 強力해지고 技術이 完璧해짐에 따라서 그 使用과, 이것과 連結되는 目的設定에 對한 人類의 決定은, 더욱 더 広範圍해지고 그 結果는 더욱 더 深刻해지고 있다. 이로서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目標들과 그러한 것의 밑바닥에 깔린 여러 利害關係에 對한 問題는 測定할 수 없을 程度의 現實性을 띄게 되는 것이다. Steinbuch는 여기서 하나의 正當한 歸結을 얻는다. 즉 “이제는 보잘 것 없는 人間의 힘이 엄청나게 큰 힘을 誘發하게 된다 스위치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된 人間에 있어서의 重要한 問題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問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一連의 價值問題는 모든 人間的 思考, 모든 社会学, 政治, 哲學의 中心的 課題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²⁾ 이것은 바로 社会

註(1) D. Magee,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Europa Verlag, Wien / Frankfurt / Zurich 1966. P.8

註(2) K. Steinbuch, Falsch programmi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68. P.57

的 目的과 目標設定, 規範과 價值思想들과 關聯하여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質的인, 새로운 社會的인 意義로 크게 浮刻될 것이리라는 것을 뜻한다. Ralf Dahrendorf는 근자에 말하기를 “이데올로기가 終熄할 때가 왔다는 것은 広範圍한 政治的構想時代가 지났다고 했다. 특히 世界觀的인 깊이를 갖는 政治的 思考는 現代로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²³⁾ 라고 하였다. Ernst Topitsch도 역시 이데올로기時代는 지났고, 現代人的 特徵은 이데올로기에서 解放된 世界觀을 갖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하여 世界觀的인 문제는 스스로 解消되고 마는바, 그것은 答을 發見 못해서가 아니고 對象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²⁴⁾ 大部分의 脫이데올로기 論者들은 이데올로기와 科學사이의 關聯性에서 말한다. 科學에 對한 이데올로기의 影響은 점점 衰退해가며 科學의 보다 넓은 發展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害롭다는 것이다. 여기서 Barion의 이데올로기와 科學에 對한 規定을 살펴보고 兩體制에 있어서의 脫이데올로기의 現象을 考察하는데 參考로 삼을까한다. “이데올로기는 閉鎖된 體系이며 어떠한 理性的 批評에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外部의 誤謬만 認知할 뿐이다. 이데올로기는 믿음을 요구하지만, 科學은 認識에 대한 꾸준한 努力인 것이다. 이데올로기와 科學은 基本的인 面에 있어서 서로 和解할 수 없는 反對物이다.”⁽²⁵⁾ 여기서 말하는 科學이란 특히 이데올로기가 強調되는 諸社會科學을 뜻하는 것이다.

註(23) R. Dahrendorf 前掲書

註(24) E. Topitsch, Sozialphilosophie zwischen Ideologie und Wissenschaft, Luchter hand Verlag, Neuwied am Rh, und Berlin 1966, P. 179

註(25) J. Barion, Was ist Ideologie? Studie zu Begriff und Problematik, Verlag H. Bouvier & Co., Bonn 1964, P. 106

5. 收斂理論과 未來學

收斂理論의 妥當性은 이 理論의 未來志向의인 性格으로 보아 근자에 活潑히 論議되는 「未來學」과 不可欠의 關聯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未來學」과 收斂理論과의 對比的 考察에서 이 理論의 未來的展望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兩理論의 相互關聯은 먼저 그 課題設定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두 未來社會에 있어서의 發達과 傾向을 研究하는데 다같이 그 目標을 두고 있다.

그러나 收斂理論家들은 이러한 問題를 全體的인 社會制度의 將次의 發展,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라는 두개의 社會體制사이에서 豫見되는 相互作用이라는 觀點에서 다루지만, 未來學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經濟, 技術, 科學과 社會 各分野에 걸쳐서 볼 수 있는 未來의 發達傾向만이 興味의 對象이 된다. 즉 그들은 2000年代에 있어서의 交通制度의 發達이라든가, 食生活을 爲한 海洋의 開發이라든가, 技術科學의 革命에 따르는 教育의 開發, 都市計劃의 問題, 家族關係의 未來象等等을 取扱하며 이러한 發達이 遂行되는 社會經濟的인 背景은 二次的인 問題로 取扱한다. 未來學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社會는 存続하며 未來에서 惹起되는 여러 問題는 그 社會體制 속에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일 未來學者들이 社會制度와 그것과 關聯되는 社會經濟的인 特徵을 取扱하는 경우에는 대개 收斂理論的인 立場을 取하는것이 보통이다.

未來學者들이 收斂理論家들과는 달리 社會의 全體的인 制度에 그다지 興味를 보이지 않는것은 그들의 主觀的인 立場에도 不拘하고

하나의 客觀的인 關係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複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단히 簡單한 것이다. 社会的狀況을 考慮의 對象으로 삼느냐 하는것의 与否나, 經濟와 社会的 特殊한 分野를 相互分離시켜서 研究한다는 것이나, 모두 主觀的 興味아니면 研究當事者의 事情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收斂論者나 未來學者나 그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方法論的인 基本方向에서는 客觀的으로 보아 共通되는 點을 갖고 있다. 즉 모두 人類의 未來의 發達狀況을 무엇보다도 科學技術的 經濟的變動이라는 觀點에서 取扱한다는 점이다. 社会的 問題 - 家族關係의 形成에서부터 國家制度에 이르기까지 - 는 오로지 科學技術的, 經濟的 發達の 結果로서 생기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 이들이看過한 것은 이러한 社会的 諸關係는 受動的인 現象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오히려 反對로 社會經濟的인 要因이 科學技術的, 經濟的 過程에 影響을 미치며 그것을 促進도 하고 抑制도 하며, 可能하게도 하고 妨害하기도 할 結果를 낳게도 하는 것이다. 이런 側面의 考察은 特히 科學的 社會診斷에 있어서는 不可欠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제까지 未來診斷에 屬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文明批判에 對한 思想的 內容의 檢討가 必要할 것 같다.

文明批評을 大別해 보면 Oswald Spengler Friedrichs A Hayek Wilhelm Ropke 등이 갖는 悲觀論的인 社會觀과 現代의 產業技術을 經濟的 理性的 表現으로 肯定하는 Max Weber的인 樂觀的인 社會觀이 있다. 이러한 潮流의 中心點인 位置를 占하고 있다고 보이는 Karl Jaspers는 '世界의 偶像打破'와 '技術世界의 發達'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努力을 通하여 實質的인 自然征服이 可能해

지고 이로서 人類史는 비로소 本軌道에 오를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現代市民社會가 갖는 이러한 思考方式이 歷史哲學에 미친 影響은 이제 分明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世界史의 解釈과 時代区分을 技術 産業의 發達이라는 角度에서 判斷하는 傾向은 바로 그 証拠로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Arnold Gehlen, Hans Freyer) 그 동안 肯定的으로 再評價되고, 理性的 表現이라고 云謂된 独占資本主義에 있어서의 技術, 經濟의 發達은 作為적으로 確定된 歷史像을 改造하고 새로히 浮刻시키는데 하나의 原則으로서 利用되었다. 二次大戰以後에 있어서의 自由世界의 知識人들이 獨逸 팻시즘에 대한 蘇聯의 勝利를 새로운 社會體制의 勝利라고 보았을 때, 社會主義 陳營이 形成되었을 때, 蘇聯의 原子力生産이 美國과 比盾하게 되었을 때, 帝國主義勢力이 崩壞되고 科學技術的 革命이 새로운 問題로서 登場하였을 때, 이제는 技術産業의 發達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政治的 權力配慮를 意識하게되므로서 다시 悲觀論이 支配하는 時期가 오게 되었다. Ohio 大學의 Hays 教授는 "現存하는 個人的企業體制를 救濟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國際적으로 널리 알려진 經濟學者 Seymour Harris도 "이렇듯 病든 體制로서 社會主義의 侵入에 對抗할 수 있다는 保證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주로 政治的 原因으로서 說明될 수 있는 戰後悲觀主義的 狀況에 있어서 技術化라는 思考方式이 內包한 資本主義的 이데오르기는 하나의 救援으로서 登場한다. 이러한 狀況에서 展開된 産業社會論과 나중이 이 理論위에서 構築된 收斂理論은 技術化라는 論理를 빌려서, 戰後의 悲觀主義에서 脫皮하고, 資本主義社會發展의 積極的인 本을 設計하여, 모든 技術的, 産業的, 經濟的인 未來問題를 資本主義的 方式에서 解決할 수 있다는 解明을 提供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役割을, 意識을 하든 안하든간에, 未來學이 하고 있는 것이다.

收斂理論과 未來와의 關係에서 또 다른 하나의 樣相은 收斂理論의 未來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收斂理論은 다른 여러 理論이 그러했듯이, 短期間의 하나의 流行論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長久한 세월을 통해서 影響力을 미칠 社會理論으로 存在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누구나 同時代人の 評價와 함께 社會理論이 많은 變遷을 겪고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豫見的인 問題提起에 대하여는 至極히 慎重한 態度로 臨해야 한다는 것은 當然한 이야기이다. 우리로서 어느 程度의 正確한 答을 얻기 위하여서는 規準設定이 必要한 것이고, 이 應用限界에 따라서 評價의 可否가 成立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關心은 다만 全體社會制度에 關한 社會理論과 이데오르기의 概念에 關한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지, 特殊한 經濟政治的, 社會學的, 理論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設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民主的이며 自由主義的인 手段에 符合하여야 한다.
2. 兩體制의 政治的, 經濟的, 競爭의 特殊한 條件을 考慮하여야 한다. 萬一 一體制에 對한 悲觀論的인 見解와 분위기가 支配되었을 경우 이를 극복하고 다시 未來에 對한 樂觀과 自信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事例은 이미 1929年과 1932年사이의 世界恐慌에서 볼 수 있었다.
3. 모든 理論의 效率性은 當時의 政治的인 方向과 一致하여야 한다.

4. 이 理論의 效率期間은 與論化할 수 있는 時間과 正比例한다. 한 概念의 理論的 構成에 있어서의 複雜性和 單純性, 一般市民들에게 있어서의 說得作用의 程度, 概念의 難易등은 重大한 意義를 갖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點은 社會科學的인 理論의 存廢에 關한 條件임은 明白한 일이다. 이런 條件을 充足시키는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效率과 期間은 保證될 수가 있다. 실지로 經濟的 哲學的 理論史를 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條件들을 充足했음에도 不拘하고 當時의 政治的 指導力의 戰術的 基本概念과 矛盾되므로서, 혹은 그 理論의 構造와 論證이 複雜하여 大衆의 理解를 얻지 못하므로서 完全히 失敗한 경우가 許多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條件 밑에서 收斂理論을 檢討해본다면, 대부분의 條件은 充足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前章에서 說明한 바가 있음으로 여기서는 두가지 觀點에 관하여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收斂理論의 潛在的인 大衆效果에 있어서는 이 理論의 根本理念이 至極히 簡單하여 모든 사람의 理解에 難點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두 體制가 언젠가는 合致한다는 이 內容은 구태여 兩體制를 理解하지 않고서도 쉽게 把握할 수 있는 題目인 것이다. 反對되는 體制에 對한 싸움을 準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結局 하나의 希望的인 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며, "結局 事態는 그렇게 될 것을!" 하는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큰 役割을 한다.

또 하나의 觀點은 收斂理論의 도움으로 하나의 새로운 廣範圍한 社會理論의 展開가 可能하다는 點이다. 收斂理論的인 基本思想은 비교적 새로우며 現代의 世界政治的인 權力布石에서 發生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收斂論者들은 各其의 問題에 對한 定義와 思想

과 全體의 概念을 收斂理論的인 思想體系로 整理하고 理論的으로 展開하여 어느 程度 流全的이고 合理的인 社會理論으로 完成시킬려고 현재 애쓰고 있다. 가령 生産과 所有權關係의 否定을 하나의 社會的構成의 體制決定的인 要素로 본다는 것 등이다.

여기서 이러한 理論의 適用을 相異한 兩體制로 擴大시켜 이 理論의 意義를 높이고 있다. 所有權關係의 無意味性을 理論的으로 確立하는 努力과 새로운 "階級概念"을 連結시킨 獨立된 "經營者 理論"을 이제는 社會主義에게까지 適用하여 "工学構造"라는 概念으로 擴大한 것은 하나의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何如든 現在와 未來의 歷史는 반드시 하나의 法則性위에서 進行된다고는 할 수 없고, 많은 併發現象과, 豫見할 수 없는 退行狀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歷史的 現實은 理論에서 發見된 法則性보다는 훨씬 多彩롭고 多하다는 것을 念頭에 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 収斂理論에 對한 公産權의 批判

64年 4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現代 부르주아社會의 収斂理論"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共産世界 學者들은 부르주아社會의 収斂理論을 부르주아理論의 早期理論이 論理的으로 繼續 發展된 것이라고 歸結시켰었다. 그들에 의하면 서방세계의 同 理念은 經濟的 發達의 工業的 類型을 類似性과 統一性을 識別하는 觀點에서 보지 않고 單一的인 産業社會의 概念만을 가지고 現代의 發達된 여러나라를 본다는 것이다 즉 經濟成長 段階의 概念에 立脚해서 世界 모든 나라의 社會的 發展이 統一的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봄으로써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接近과 収斂이 可能하다는 論拠를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방측 수렴이론가들의 追從者들은 兩 體制의 經濟的인 메카니즘이 平衡되기 마련이라고 보는 바 이것은 두 體制가 모두 生産活動의 實際에 있어서는 "利潤"을 目的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 經濟的인 메카니즘이란 經濟的 規範의 單純한 外形만이 아니고 어느 確定한 社會的 諸 關係까지도 具現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측의 収斂理論을 東獨의 政治史家인 G.Rose는 "낡은 世界의 새로운 Mythos"라고 한마디로 結論지은 바 있다.¹⁾ 즉 그는 W.Ulbricht와 K.Hager의 収斂理論에 對한 見解에 同調하면서 서방측 収斂理論을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Rose의 주장은 다음項에서 자상히 다루기로 하고 爲先

註 1) Gunter Rose: Konvergenztheorie - ein neuer Mythos der alten Welt, In: Zeitschrift für Geschichtswissenschaft, Berlin (Ost), Heft 1/1967. P.20

이 곳에서는 V.Stoljarow의 論拠를 結들여 要約해 본다.

Stoljarow도 "K.Marx의 哲學的 理論과 그 意義"라는 강연에서 서방측 收斂理論家들의 論拠를 한 社會의 制度的 性格과 社會機構의 總體를 度外視한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²⁾ 그러나 서방측 理論에 의하면 産業技術革命時代에 있어서 유럽의 國民經濟가 모두 接近하고 있는 現象은 必是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도 論理 整然하게 脫이데올로기 傾向에로 接近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와 이데올로기를 除外한 經濟, 國家, 藝術 및 文學 分野에는 同 理論을 適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共產圈의 見解로서는 이것조차도 容納되지 않고 있다. 왜 서방측의 收斂理論이 共產世界에 받아들여지지 않나를 Herbert Meibner와 G.Rose의 論證을 들어 綜合해 보련다.

東獨의 理論家인 H. Meibner는 서방측 收斂理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 적이 있다.

그는 71年 10月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 "Die Zeit" 紙의 편집장인 M.G.Donhoff 女史에게 출판·문화賞이 내려질 때 Donhoff 女史가 同 式上에서 行한 收斂理論에 關한 演說을 引用 批判한 바 있다. Donhoff 女史는 말한다. "西方 世界에는 지난 百年을 통해서 Karl Marx를 肯定, 또는 부정하는 아무런 政治哲學이 나오질 않았다"³⁾ 고. 이 말을 Meibner는 敷衍해서 다음과 같이 註解했었다.

註 2) Vitali Stoljarow: Das System im Marxismus. In: Neues Deutschland 紙, P.6. (1968年 3月 23日 字)

註 3) H.Meibner: Konvergenzdenken von der Wirklichkeit Bedrängt, In: Einheit, Heft 12/1971, P.1041.

收斂理論이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理論的인 아니 實質的인 공격을 위해 대두된 것이다. 즉 社會主義를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Doctrin으로서 創案된 理論이지 두 體制의 差異와 政治的變化를 全的으로 等閑視한 理論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伯林大學의 經濟學者인 K.C Thalheim과 같은 反共主義者에 의해서 收斂理論의 立場에서 粗雜한 方法으로 社會主義의 沒落을 예측하는 따위에나 適用되는 理論인것 뿐이다. 數三年前에 西方世界의 社會學은 두 社會秩序의 接近傾向이 모든 社會生活 全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檢討한 바 있지만 同 研究檢討는 理念的인, 哲學的인, 아니 社會科學이라는 學的인 面에서 볼때엔 別다른 意義와 成果가 없는 것이었다.

Donhoff 女史가 收斂理論의 肯定的인 立場을 取하는 데는 東西를 莫論하고 人間의 思惟는 제각기 社會秩序의 옛 發展段階를 是認하는 觀念을 갖고 있다는 데서 그 論理展開가 시작되었지만 Donhoff 女史가 한가지 識別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즉 西方世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市場經濟가 繼續 機能을 發揮한다는 觀念을 갖고 있는 반면에 共產社會 人間들은 역시 K.Marx의 理論에 對한 確信을 갖고 있다는 점을 識別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認定하지 않은 點이다. 달리 말하면 두 體制속의 人間이 제각기 다른 觀念을 갖고 살아오는 동안에 두 社會秩序는 서로 異質的인 다른類의 發展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事物의 實質的 存在에 關한 人間의 觀念이 確固히 다르게 되었다는 점을 認識하지 못한 때문이다.

오늘날 資本主義 여러나라의 政治家들이나 思想家, 學者 및 言論人들이 資本主義에는 반드시 自由競爭이 完全히 行해지고 있다고마

는 確信하지 않는다는 것을 Meibner는 主張했다. 그는 例를 들었다. 지금 어느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오늘날 資本主義가 市場經濟로서 完全한 自由競爭을 行하고 있다고 강의 했을때 그것을 額面 그대로 믿을 學生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4). 그러나 共產世界에서는 맑스주의는 맑스의 認識을 立証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政治的 체험과 科學的 方法의 基底위에서 맑스, 레닌주의를 發展시켰을 뿐더러 實狀況의 變化해 가는 過程속에서 그의 理論的 體系를 完成시켰다.

Donhoff 女史의 主張에는 事實에 對한 人間의 觀念이 事實自体보다 觀念이 훨씬 強하다는 것이 있다. 이 말은 결국 事物에 對한 人間의 觀念이 事物 自体보다도 훨씬 重要하고 강하기 때문에 眞實이 決定的인 것이 아니고 眞實에 對한 人間의 觀念이 더 重要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Donhoff 女史가 收斂理論에 對한 不調理하고 恣肆한 結論을 내린것 밖에 않는단다.

왜냐면 공정히 말해서 오늘날 그러한 主体——觀念論的인 見解를 肯定하는 知性人이 其實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要컨대 이것은 理性의 強度와 証拠의 確信力만이 언제나 眞實과 合致되는 人間思惟를 가져 오기 마련인 때문이란다. "難關에 부딪힌 수렴이론이 앞으로 어떻게 그 理論을 변명해 展開해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는 궁금할 따름이다." 라고 하고 있다. 5)

H.Meibner가 위와같이 수렴이론을 批判했는가 하면 G.Rose의 同 理論 批判은 아래와 같다.

1968年 東獨 外交紙에 실린 "두 世界体制 接近에 關한 小論"

註 4) H.Meibner의 前掲書. P.1403.

註 5) H.Meibner의 前掲書. P.1403.

이라는 論文에서 그는 G.F.Kenan, W.W.Rostow, J.K.Galbraith, Z.Brezezinski 등등 美國의 代表的 수렴이론가들을 一括 批判하되 저희들의 말을 引用하면서 하나 하나 反証했었다. Z.Brezezinski 와 S.P.Huntington이 말한 바 있는 수렴이론의 根本적인 것은 "蘇聯과 美國이 서로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体制的 變化는 結局 蘇聯에서만 현저히 볼 수 있을뿐 美國은 依然히 복지와 자유를 維持해 갈 것이다." 6) 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結局 蘇聯만이 漸次 美國과 같은 현상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된다. 同 理論은 結局 資本主義가 發達된 나라의 大衆만이 <캐피탈리즘>을 人間의 自然法則的 發展策으로 여기고 또한 人間社會의 永久的인 社會形態로써 同調할 뿐이지 社會主義的인 변혁을 위한 鬪爭은 無意味한 것으로써 度外視한것 밖에 되지 않는다.

技術革命의 經濟的 過程에서 두 社會制度가 융합 또는 接近한다는 論證의 실마리를 얻은 W.Buchingham과 J.K.Galbraith, 그리고 效率的인 두 体制를 Optimal한 經濟構造에로 變形시킨다는 假說을 내세운 J.Tinbergen, 그리고 經濟体制 뿐만이 아니고 社會体制 즉 經濟的인, 政治的인, 理念的인, 文化的인 諸 關係가 單一체로써 交互的인 융합과 接近傾向을 보인다고 証示한 P.A.Sorokin 등 諸氏는 모두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對立되어 있는 敵對的인 性格을 아주 소홀히 다루었다고 Rose는 批判한다.

다시 말하면 서방측의 수렴이론가들은 生産手段에 있어서 私有財

註 6) G.Rose: Die Legende Von der Annahmung der beiden Weltsysteme, In: Deutsche AußenPolitik, Berlin 1968, Sonderheft 2, P. 162 ~ 172.

뜻이나 아니면 社会的 資産을 위한 것이냐 하는 制度的 差異의 根本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두 體制에 있어서 大量生産의 所有와 使用이 完全히 다르다고 하는 根本적인 差異點은 生産力의 發展과 生産機構에 있어서의 部分的인 外的 類似性만으로는 결코 밝혀지지 않는 법이라고 Rose 는 주장한다. 資本主義的 生産의 目的은 오늘날도 Marx와 Engels의 生存時와 마찬가지로 역시 利潤일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生産方法에서는 대량생산은 社會的 蓄積의 財源이 되고 나아가서는 教育制度나 文化領域과 같은 社會 諸 分野의 要求를 充足하는데 奉仕하는 것이다. 즉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이야말로 個人과 社會間의 歷史的으로 자란 모순을 超克시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具現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모든 社會事象은 제각기 經濟的인 社會變換과 制度的 性格에 特徵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結合이란 두 社會制度의 社會, 經濟的 不相容때문에 不可能한 것이라고 Rose 는 보고 있다.⁷⁾

註 7) G. Rose 의 前揭論文, P. 171.

7. 南北再結合을 爲한 收斂理論 適用可能性의 與否

7. 南北再結合을 爲한 收斂理論 適用 可能性의 與否

위의 諸節에서 수렴이론의 概念과 그 目的 그리고 同이론에 對한 贊反의 諸論點을 概觀해 보았다. 이제 아래에서 同이론이 우리 의 南과北 再結合을 爲한 長期的 諸試圖의 論據로서 適用될수 있나 與否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分裂에서 統一에로 흐르고 있는 世界文明의 時潮에서 볼때, 世界의 國家群이 各己 理念과 體制는 다르지만 高度의 産業化에로 발전해 가는 途程에서 충돌이나 破局을 避하고 平和共存하기 爲해 國際協助를 積極化하리라는 傾向은 쉬이 내다 보아진다. 그런데 이 국제 협 조의 적극화 傾向은 一九世紀의 遺産인 <國民國家의 理想>이 世界 人의 腦裡에서 점차 흐려져 갈때 그 템포를 더 빨리하게 될것도 自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高度化 産業사회에로의 途程에서 人間이 政治的인 國家目的보단 平和속의 人類福祉를 더 重要視하게 될때, 從 來의 政治理念은 修正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體制 형성이 시도되지 않을것인가도 斷定하지는 못한다. 이미 一次大戰後부터 國際協助의 무-드는 크게 일었었지만 二次大戰後 冷戰體制를 초극하고 평화공존 을 유지하기 爲한 國際協助 傾向은 더욱 高潮되었었다. 이 共存과 協助무-드속에서 産業社會의 未來像을 그린 學者들이 있었는데 이 들이 바로 R.Aron이나 R.A.Sorokin 같은 수렴이론가인 것이다. 兩 次大戰後의 人心의 變化가 人類福祉를 願하게 되었는바 高度의 産業 社會를 向해가는 두 體制는 어떠한 수렴과정을 겪어 單一化된 産業 社會를 낳을 것인가라는 假說을 연구한것이 바로 수렴이론인 것이다. 즉 同수렴이론은 한말로 해서 어디까지나 高度化된 産業社會를 前提 한 것이기 때문에 近代化의 歷程을 거친 歐美의 東西國家間엔 同이

론에 대한 贊反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南北처럼 開發途上에 있는 社会形勢下에선 民族分断의 起克때문이기 하지만 同이론의 適用 与否 論議란 無理한 試圖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同이론이 提示하는 中核이, 첫째 工業化 過程에선 体制 差異에 關係없이 生産手段의 기술과 管理層이 脱이네올로기 경향에 스게 되고, 둘째 經濟活動의 效率化를 爲해선 閉鎖社会도 그 開放이 不可避하다는 것, 셋째 豊요한 福祉社会에선 Dogma的 世界觀의 變化가 일어난다는 것, 넷째 異質体制間의 交流에선 優秀体制에로 人心의 變化가 기운다는 것. 등등이고 보면 他意에 依한 民族 分断의 초극을 爲해 우리가 同이론을 適用 시도해 보려는 것도 全然 不当하지는 않다.

勿論 同이론의 否定論者(大部分 共產主義者 들임)들은 同이론이 資本主義와 社會주의와의 体制差異를 輕視했다하여 자본주의 体制維持와 아울러 社會주의의 沒落을 宗용하는 不柔理한 이론이라고 論駁하지만, 戰後 世界의 變化樣相을 보면, 全面 否定할수 없는 이론인 것이다. 왜냐면 二次大戰後 二〇余年間에 있었던 東西 國家群의 体制的 變化는 同이론이 適用되었든 아니였든 間에 산업사회에 로의 途程에서 일어난 理念의 修正이요. 体制의 改革이었다고 볼 적에 同이론이 提示하는 未來社会에 對한 假說이 非論理的인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同이론을 우리의 民族 再結合을 爲해 適用할수 있는가를 檢討하는 것이다. 그러나 同이론의 適用 可能性을 立論하기에 앞서 먼저 戰後 東西 國家群이 어떠한 体制的 變化를 겪었는가를 略述해 본다.

첫째 西方社会의 기업경영 實態를 보면 公산주의자들은 依然히

자본주의가 無産者를 착취하는 利潤 独占制度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오늘의 기업실태가 되었다. 勿論 企業主의 生産手段이 利潤을 目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그러나 지금 市民社会의 民主化는 企業主의 独占的인 資本축적을 合理的으로 阻止시킬수 있는 水準에 와있다. 共產主義者들이 일컫는 소위 <푸롤레타리아> 즉 工場의 賃銀労働者와 各生産部門의 勤勞者들은 被착취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中産市民이 된지 이미 오래前이며 労働組合이라는 政治的인 压力团体를 通해 그들 自身이 資本主의 独目的인 기업경영을 阻止하고 있는 현실이다. 西歐社会의 賃銀労働者가 資本家에게 人權을 유린 當했다는 事例는 저들에게 이미 그 옛날의 神話가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로 공산사회에의 기업실태는 어떻게 변모했나를 보자. 중앙집권적 計劃經濟 体制라고는 하지만 生産高가 높아지므로써 國家經濟 自体는 勿論이러니와 労働者의 生活向上도 기획되는 것이기에 저들도 역시 利潤 增大를 爲해 그 나름으로 기업의 管理体制를 개선 시도하는 경향이다. 例컨데 蘇聯의 Lieberman 理論을 비롯해서 불가리아의 Kunin 경영 改編論 유고의 소위 競争社会主義 (Konkurenzsozialismus) 그리고 체코의 Ota Sik 教授의 市場 定着的인 사회주의 (Marktorientierter Sozialismus) 이론등등이 모두 그 좋은 예이다. 아래에서 불가리아와 유고를 中心으로 보다 많은 利潤獲得을 爲해 東歐圈의 기업경영 실태가 어떻게 改革되었나를 살펴 보겠다.

첫째 불가리아의 경우 발칸의 <小蘇聯>이라고 불리우리 만큼 政治的 自由化가 全無인 곳인데도 經濟政策을 보면 利潤의 增大를 爲해선 政治秩序에 紊亂이 없는限 經營実態를 改編해 보자는 시도가

있었다. 즉 불가리아政府는 党 中央委員인 同時에 經濟學者인 Kunin 教授의 經營 改編論을 받아드려 이를 실시해 본바 있는데 Kunin 教授 理論의 要旨는 아래와 같다. 가) 勞動者가 製品의 品質이나 利潤에 興味를 갖도록 個個人에게 物質的 刺戟을 주라는 것, 나) 利潤을 내지 못하는 企業에 對해서는 國家補助를 중단하고, 그리고 各 企業에 對해 經濟的인 獨立性을 부여하라는 것. 다) 各 企業에 對한 中央委의 指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個個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企業間에 競爭을 할수 있도록 勸獎하라는 것 등이었다!) 소피아 近郊의 纖維工場 하나를 모델로 選定하여 구닌教授의 經營論을 施行해 본 結果 그 成果는 매우 좋았다. 年間計劃이 十一個月에 이미 完遂되었는가 하면 製品의 質도 오히려 더 좋아졌고 또 從業員의 給料도 平均 10%가 引上되었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구닌理論을 合法化한 經營 改編 施行令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가리아는 그 後 줄곧 위의 實驗 施行을 示範삼아 經濟 自由化에로의 새로운 指針을 研究中에 있다.

둘째 유고의 경우인데 "收斂理論의 이론과 實際" 라는 모델은 아마 유고에서 찾을수 있지 않나할 程度로 이 나라의 소위 競爭社會主義는 興味있다. 五八年의 新綱領 採択에서 유고는 참된 社會主義에로의 途程이 반드시 共產主義的 發展을 겪지 않아도 可能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最近의 資本主義 動向을 보면 產業國有化, 國家投資의 增大, 個人資本의 制限等等 예전과는 다른 變化를 하고 있는바 저 狀態下에선 반드시 資本主義的 矛盾은 격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된 社會主義에로의 途程에선 勞動組合, 民族革命運動,

註 1) 党 理論雜誌<노보 부레메>의 63年 12月号

社会民主党의 역할도 無視할수 없다는 要因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独自の 社会主義体制를 爲해 西方体制의 Positiv한 要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綱領에도 밝혀둔 유고는 生産手段에 있어서 能率과 利潤 爲主로 아주 Flexible한 体制를 갖추고 있다. 例컨데 모든 企業을 労働者에게 讓渡하여 그 運營 一切를 労働者에게 委任하므로써 소위 <労働者 自主管理>라는 制度를 만들어 놓고 있다. 즉 労働者에 依한 企業의 自主管理는 一般 労働者中에서 選定構成된 <労働者 評議會>에 依하여 遂行되고 있다. 이 <労働者 評議會>는 또한 企業경영의 실무를 全担하는 <經營委員會>도 구성할 뿐더러 企業經營者的 立場에서 모든것을 企劃하기도 한다. 즉 製品의 種類 및 價格決定, 收益의 配分方法, 企業의 확장을 爲한 諸企劃, 從業員의 任免決定 등등을 決議하여 經營委員會에 시달하면 經營者가 이것을 具体化하여 企業의 運營에 適用, 施行하고 있다. 製品의 種類, 生産高, 價格決定, 利潤의 直接分配 등을 行하는 이 <労働者 自主管理> 制度는 最近 共產圈에서 利潤方式의 採用이라 하여 各國이 導入하여 제 나름으로 施行하고 있는 实例이다.

위와같이 企業경영의 實態가 東西歐圈을 막론하고 合理的인 運營에로 그 体制를 改革하면서 보다 많은 利潤을 쫓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수렴이론의 假說을 前提로한 변화였든 아니든 間에 産業社會에로의 발전도상에서 나타난 特色인것 만은 틀림없다.

理念이 다른 두 体制이지만 單一化的 産業社會에로의 發展過程에서 接近을 통한 쌍방의 適應은 各己의 취약점을 초극하는 同時에 서로가 다른 相對方에 對해 많은 影響力을 미치기 始作할것 이라는 이 收斂理論 (J. Tinberger의 立場)은 公산측의 비판처럼 단순히 資本主義 合理化의 變명論으로써 抬頭된것은 아니다. 六〇年

代 初부터 同理論이 歐美社會에 傳播되기 시작했을때 다른 나라에
 比해 西獨에는 同이론이 널리 普及되질 않았다. 우리처럼 分斷의
 비극을 안고있는 나라라서 分斷民族의 再結合을 爲해 宜當히 同이
 론이 더 많이 研究되어야 했을것이 오히려 그 反對現象을 보였든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였으리라 본다. 同이론이 抬頭되었든 六〇
 年代 初만 해도 西獨의 政治的 分위는 平和共存을 前提로 東獨
 에 接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社會主義와 對決해서 東獨을 期於히
 西獨體制에 吸收하겠다는 式의 緊張된 狀況이었다. 그러기에 接近
 해서 同質化를 피하고 나아가선 POSITIV한 單一體制를 형성해 갈
 수도 있다는 同이론(R.Aron과 P.A.Sorokin의 社會學的 側面)은
 저 때의 保守政客들에게 Realpolitik에 利用할수있는 假說이 못
 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 西方의 對東歐策 一選에서 積極적인
 東方接近과 和解를 통해 “中歐에 있어서의 獨逸人의 自由行爲圈을
 확대”해 보겠다는 現브란트政權의 外交政策에는 收斂이론의 社會學
 的 側面的 These가 容納될수 있는 假說이 된 것이다. 換言하면
 接近과 交流는 體制間의 이질성을 해소할수 있고 또 弱勢體制가
 優秀體制에 收斂될수 있다는 假說이 지금의 西獨 政治風土와 進
 步派 政客들에게 首肯되는 것이다. 近來에 西獨政府가 저들 東方政
 策의 基本戰略에 立脚해서 東歐와 從前보담 훨씬 活潑한 經濟, 文化
 交流를 하고 있다. 이 積極적인 經濟, 文化交流策이 收斂이론의 論
 據에 바탕을 두고 行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國策의 機密이니
 알수없는 일이지만 同施策을 東歐諸國은 收斂이론을 前提한것 이라고
 고 비난하고 있다.²⁾

註 2) Willi Gerns: Konvergenz theorie und ihr Plat in der Au-
 seinandersetzung zwischen Kapitalismus und So-
 zialismus, In: Marx Blatter, 1968年6月号, p. 32

戰後의 學者들이 兩極體制를 直視하면서 高度化되어 갈 산업社會의 未來像을 予測한 假說이 收斂이론이라고 불때, 同假說은 學的으로도 現代人이 首肯할수있는 充分한 論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두 體制의 接近과 融화과정에서 产业社會의 Optimal한 單一體制 出現을 前提한 同이론은 급진적인 平和追從者에게 惡利用 當할 때엔 平和共存의 基底위에 슌 現存秩序를 破壞할수 있는 위험한 一面도 없지않아 있다. 例컨데 Ota Sik의 新經濟政策에 힘입어 急速히 共產獨裁에 反하는 修正路線을 揠했든 체코 自由化의 悲劇이 이미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 新左派의 새로운 世界觀 형성에 惡影響을 미칠수도 있는 것이다.³⁾

위와같은 收斂이론이 우리 南北 再結合 試圖에 適用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筆者는 非政治的인 문제의 交流를 爲해선 同이론의 適用이 可하다고 본다. 그러나 統一을 念願하는 同一民族의 意識構造를 同質化하련다는 眼目에서 同이론을 우리 南北對話 發展策의 論拠로 삼을려 하드라도 同이론을 段階的인 試圖策과 어떻게 適宜 具體化하느냐의 문제는 계속 研究되어야만 한다.

註 3)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諸國의 生活向上이 資本主義에 로 逆發展해 간다고 批判한 新左派를 가리킨다.